

5월 베니스, 한국의 단색화를 실험하다

김아미 기자

2015-02-17 09:49

[헤럴드경제=김아미 가지] 미술계 블루칩으로 떠오른 한국 단색화, 그 열풍은 언제까지 지속될까.

한국 단색화 1세대 작가인 박서보, 정상화, 하종현, 이우환이 5월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한국 단색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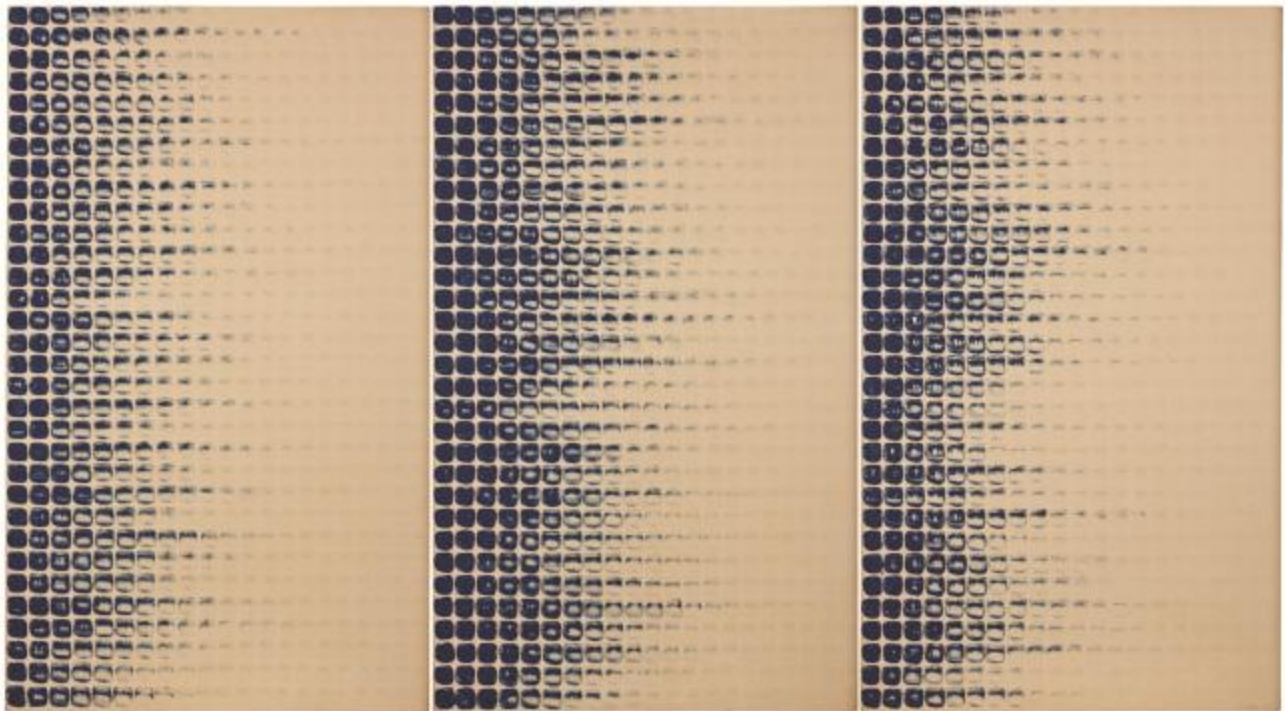
벨기에 보고시안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갤러리(대표 이현숙)가 후원하는 한국현대미술 특별전 '단색화'전이 제 15회 베니스비엔날레의 병렬전시의 일환으로 오는 5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 팔라쵸 콘타리니-폴리냐(Palazzo Contarini-Polignac)에서 열린다.



왼쪽부터 작가 하종현, 이우환, 박서보, 초빙 큐레이터 이용우. 사진 Keith Park. [사진제공=국제갤러리]

베니스비엔날레재단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이번 특별전은 197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단색화의 대표적 거장들의 작품을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.

최근 3년간 국제 미술계를 통해 새롭게 검증되기 시작한 한국 단색화의 전시를 포함, 연구, 출판, 세미나, 퍼포먼스 등을 통해 한국의 단색화를 다각도로 조명한다.



이우환, 점으로부터, 1977 [사진제공=국제갤러리]

생존하는 단색화 작가들을 포함해 작고 작가인 김환기, 정창섭의 작품도 출품되며, 시대별 단색화를 큰 흐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 70여점이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다.

한편 외국의 비평가와 큐레이터들이 한국의 단색화에 대해 연구한 내용들을 모은 책이 뉴욕 출판사 DAP를 통해 발행될 예정이다. 필진으로는 알렉산드라 먼로 구겐하임미술관 큐레이터, 멜리사 추 허시혼현대미술관 관장, 조앤 기 미시건주립대 미술사학과 교수, 제레미 르위슨 전 테이트미술관 컬렉션 디렉터 등이 참여한다.

amigo@heraldcorp.com

URL: <http://biz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150217000310>